

교구를 사용한 국악 창작수업 지도방안*

A Method for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Creative Class with the Use of Teaching Aids

이 정 민**

Jeong-Min Lee

초록 본고는 학생들이 국악 창작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구를 활용한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간보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삼소박 카드와, 가락짓기 교구를 사용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창작활동 등에서 활용되며, 학생들은 카드를 생략·교환·추가 등의 형태로 조합하면서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관계 및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가락짓기 교구는 2음·3음·육자배기토리·메나리토리 가락짓기로 활동하였으며, 교구판에 음카드와 음색깔 카드로 가락을 만들면서 선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제어: 삼소박, 장단꼴, 말붙임새, 가락짓기, 창작활동, 교구활용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 for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creative class with the use of teaching aids. For this purpose, a set of Samsobak cards that utilize the basic principles of Jeongganbo and a melody making tool a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Samsobak cards are used for rhythm formats and the utilization of lyrics, by omitting, exchanging, and adding rhythm cards, they are led to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s of rhythm formats and the utilization of lyrics. The melody making tool is used for the melody making activity with 2 notes, 3 notes, yukjabaegitori, and menaritori rhythms. A melody is composed by using note cards and note color cards on the teaching aid board.

Key words: samsobak, forms of rhythm, the utilization of lyrics, melody making, creative activity, the utilization of teaching aids

* This article based on the presentation at the 'Music Education, Body, Human, and Knowledge of the Teaching Field' on August 2019, hosted b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tty1236@hanmail.net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2.175>

I. 서론

초등학교 음악교과에서 창작활동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적 역량과 목표 성취를 위한 주요한 요소이다. 초등 음악과 교육목표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4). 또한 음악은 고정되거나 완성된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대상이어야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는 음악교육이어야 하며,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를 줄 아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Kim, 2013, p.23). 이같이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습의 도달점은 창작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체계¹⁾ 중 국악 단원에서 창작활동에 기본이 되는 부분은 장단꼴, 말붙임새, 가락짓기이다. 장단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3~4학년이 세마치장단·자진모리장단, 5~6학년은 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으로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나,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모두 '장단'으로 표기되면서 4학년 교과서에서도 중중모리 장단꼴이 소개되고 있다. 말붙임새 활동은 3~6학년까지 학년별 1~3개의 제재곡에서 말붙임새 활동을 하고 있으며, 3~4학년은 자진모리장단·세마치장단, 5~6학년은 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의 제재곡을 활용하고 있다.

가락짓기는 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2마디 정도의 가락을 짓는 활동'으로 3학년 부터 다루어졌으며, 2음을 이용한 전통 가락 창작하기 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3~4학년의 가락창작 활동이 제외되고, 5~6학년에서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 즉 가락짓기는 3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부터 다루어지던 활동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3학년에서 제외되었고 현행 교과서에서는 5~6학년부터 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을 살려 가락짓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1979년 3차 교육과정 때 보다 기본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체험 환경이 다양해졌음에도 가락짓기 활동이 3~4학년에서 제외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음악 교과서에서 가락짓기는 지역별 토리의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은 선을 그리며 가락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선율을 이해하여 가락을 만들고, 완성된 가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1)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체계 중 국악에 해당되는 개념 요소는 장단·장단의 세, 장단꼴, 말붙임새, 여러 지역의 토리, 시김새, 형식(긴·자진형식, 시조형식), 한배의 변화 등이 있다. 음악과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된 국악 창작활동은 장단꼴·말붙임새 만들기, 가락짓기, 노랫말 바꾸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국악과 관련된 음악 만들기 등이 있다.

국악창작 학습은 ‘별도의’ 수업이 아니라, ‘연계적인’ 수업이고,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다(Kwon, 2017, p.8). 또한 학생들은 음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음악적 장르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탐구적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음악적 경험을 연결 짓는 적극적 경험을 강조한다(Kim, 2001, p.22). 이처럼 창작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국악 창작 활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창작국악 활동에 관한 연구는 말붙임새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말붙임새는 3·4학년 말붙임새 창작활동을 분석하고(Park, 2015), 민요의 장단별 말붙임새 유형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였으며(Kim, 2013), 가창 제재곡에 관한 말붙임새를 고찰하는(Byun, 2011)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장단과 연관된 연구에서는 장단의 말붙임새를 활용하여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Kim, 2010), 전래동요의 말붙임새를 이용하여 리듬창작 방안(Park, 2009)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악 창작 수업에 교구를 활용한 연구와 가락짓기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고는 국악 창작 수업에서 학생들이 구체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음악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만의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구를 활용한 수업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간보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삼소박 카드와, 가락짓기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겠다. 정간보는 세로로 된 악보이지만, 학생들의 읽기 방법을 고려해서 교과서에 사용되는 방법대로 가로로 된 정간보를 사용하겠다. 연구의 범주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국악단원 중에서 말붙임새, 장단꼴, 가락짓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다.

II. 리듬짓기를 위한 교구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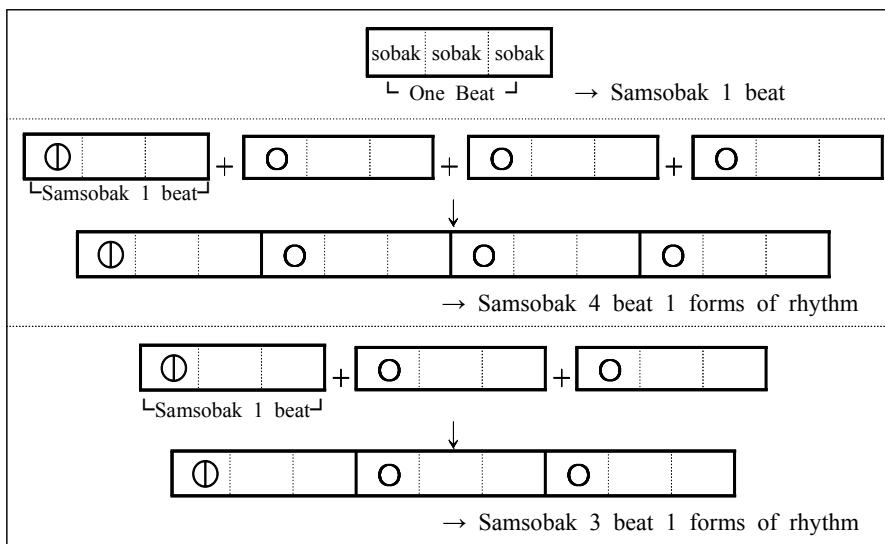
한국음악에서 시가와 관련된 요소 중에는 장단과 말붙임새 등이 있다. 한국음악의 장단은 장단은 소박²⁾이 모여서 한 박을 이루며, 장단에 사용되는 소박은 2소박, 3소박, 2소박과 3소박이 섞여 사용되는 혼소박이 있다(Kim, 2015, p.65). 음악 교과서에는 3소박 1박이 세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세마치장단과 3소박 네 개 한 장단인 자진모리장단·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이 사용되며, 이 장단들의 공통점은 3소박이 한 박을 이루는 구조이다.

2) 1개의 박이 2개나 3개로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분할론이며, 이때에는 소박을 ‘분박’이라고 한다. 반대로 1개의 박이 2개 혹은 3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을 집합론이라고 ‘소박’이라고 한다. 서양 음악은 분할론체계이며, 한국음악은 집합론체계이다. (김혜정, P. 125)

현재 음악 교과서에서 말붙임새와 장단꼴에 활용되는 자료는 가로로 된 정간보가 그려진 활동지와 음악 교과서 부록에 제시되어있는 붙임딱지가 있다. 가로로 된 정간보는 교과서에 학생 스스로 장단부호를 그려 넣으며 사용하고, 붙임딱지는 스티커 형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삼소박 1박의 장단꼴을 붙이게 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이 같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개인활동으로 사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잘못 붙였을 때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개의 장단꼴을 나열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생기게 되며, 모듬이나 발표 활동에서 시각적으로 제시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에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듬 및 발표 활동에서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교구를 고안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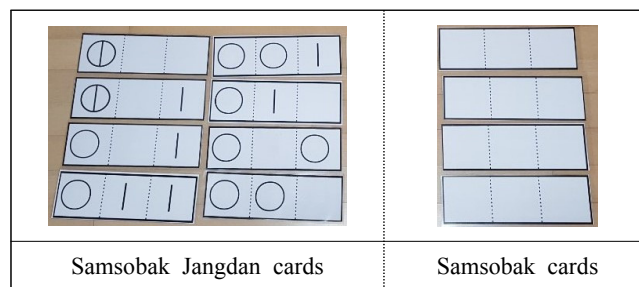
1. 리듬 창작을 위한 도구 제안

리듬관련 창작을 위한 도구는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삼소박의 원리를 이용하여 삼소박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고, 박이 모여 장단꼴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1개의 카드는 한 박자를 의미한다. 작은 박을 의미하는 소박이 세 개가 모여 한 박을 이루며 삼소박 카드 세 개를 붙이면 삼소박 3박자 한 장단인 세마치장단, 네 개를 붙이면 3소박 4박자 한 장단인 자진모리장단·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만들 수 있다. 삼소박 카드의 원리는 다음 [Figure 1]과 같다.



[Figure 1] Principles of Samsobak cards

삼소박 카드는 교사가 현장에서 만들기 용이하고, 학생들에게는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듬·발표 활동을 할 때 활용 되도록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였다. 만드는 방법은 가로로 지정한 A4용지에 삼소박 한 박자 모양의 표 두 개를 그리고, 소박 안에 여러 가지 장단 부호를 그려 넣고, 출력한 후에 코팅을 한다. 삼소박 카드는 아래 [Figure 2]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장단 부호가 그려져 있는 카드와 빈 카드가 있으며, 코팅한 삼소박 카드 뒤에는 종이자석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붙인다.



[Figure 2] Samsobak cards

교사나 학생이 활동을 할 때 장단 부호가 그려진 삼소박 카드는 여러 가지 장단 부호를 선택해서 장단꼴을 만들 수 있고, 빈 삼소박 카드는 화이트 보드펜으로 장단을 그려 넣거나 말붙임새, 노랫말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코팅이 된 삼소박 카드는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모듬 활동을 할 때 함께 의견을 조합할 수 있다. 또한 카드에 자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창작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할 때나, 학생들이 발표할 때 칠판에 카드를 붙여서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이 되고, 박이 모여서 장단을 이루는 원리를 사용하여 만든 교구이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를 분리하고 재조합하면서 다양하게 창작하여 표현할 수 있고,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기본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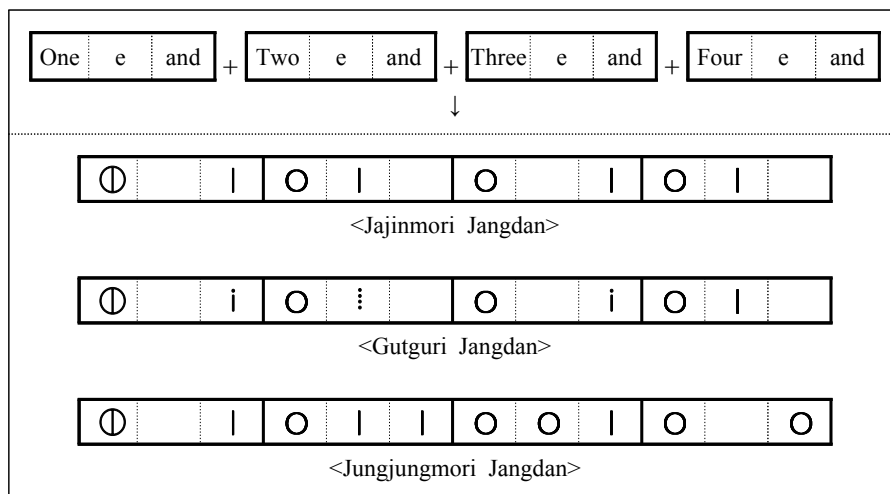
2. 삼소박 카드 활용방안

1) 장단꼴 만들기

장단꼴 창작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 3~6학년에 제시

되어있다. 3학년은 자진모리장단, 4학년은 세마치장단과 자진모리장단, 5학년은 세마치·자진모리·굿거리장단, 6학년은 굿거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장구로 연주하는 활동을 한다. 이 같은 장단꼴 창작 활동을 위해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삼소박 카드를 사용해서 장단꼴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장단과 박은 호흡의 개념으로 작은 소박이 모여서 한 박을 이루기 때문에 아래 [Figure 3]과 같이 소박의 수를 세며 삼소박 카드를 붙여 기본 장단을 만든다. 카드 한 장은 한 박자를 의미하게 되며, 세마치장단은 세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진모리장단·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은 네 개의 카드를 붙이며 장단을 만든다. 장단 부호가 적힌 카드를 사용할 때는 장단 구음을 읽으면서 카드를 붙이고, 장단부호가 적혀 있지 않은 빈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를 붙인 후에 보드펜으로 장단부호를 표기하면서 구음을 읽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정 장단이 완성되면 장단의 호흡에 맞춰 신체표현하며 구음을 읽고, 장구로 연주하여 장단을 익힌다.



[Figure 3] Example of making beats with Samsobak C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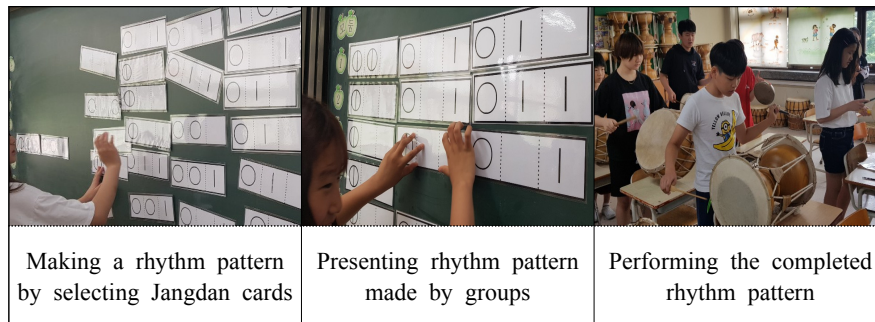
삼소박 카드를 사용한 장단꼴 창작활동은 장단의 부호카드를 분리하고 재조합 하면서 장단꼴을 만든다. 장단의 기본 장단꼴을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 후에 박자별로 분리하고 여러 가지 예시 장단꼴 카드를 재조합해서 만들게 된다. 특정 장단꼴에 한배가 변하지 않도록 장단의 첫 번째와 마지막 카드는 그대로 두고 가운데 두 박자 정도만 재조합 하여 만들고, 장단꼴에 익숙해지면 장단부호가 생략되거나 추가된 여러

장단꼴 카드를 선택하여 만든다. 장단 부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빈카드를 사용하여 장단 부호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

완성된 장단꼴은 가창영역과 기악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창영역에서는 제재곡에 어울리는 장단꼴을 만들어 연주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장단꼴을 짝이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연주해 주고 역할을 바꾸어 연주하고 노래 부른다. 또는 노래에 어울릴만한 여러 가지 장단꼴을 만들고 제재곡에 맞춰 연주하는 활동을 통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장단꼴을 선정한다. 이 같은 활동은 자신이 만든 장단꼴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악영역에서는 만든 장단꼴을 장구로 연주하거나, 소고·뿔과리·북·징 등으로 합주한다. 악기로 합주를 할 때 사용할 장단꼴은 악기의 특성에 맞게 악기별로 장단꼴을 만들 수 있다. 합주용 장단보는 사용할 악기의 개수만큼 가로 방향으로 카드를 붙여 만들고, 완성된 장단꼴은 악기를 합주해 보면서 악기 소리의 어울림에 따라 장단 부호를 조정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성에 맞게 악기 소리의 어울림을 탐색하고 장단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창작하여 내면화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삼소박 장단꼴 카드를 사용하는 창작활동은 개인, 모둠활동으로 가능하며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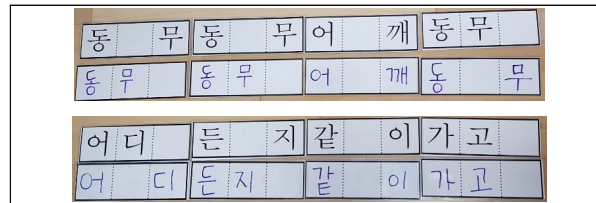
[Figure 4] Examples of the usage of Samsobak rhythm cards

[Fig. 4]와 같이 모둠활동을 할 때 장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장단을 만들 때 모둠원이 함께 삼소박 장단카드를 선택하여 조합하며 만들면서 장단의 구성 원리를 알게 되고, 카드를 선택하여 붙이면서 모둠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 모둠이 발표하는 장단꼴이 시각적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잘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2) 말붙임새와 노랫말 만들기

말붙임새는 노랫말이 붙어있는 모양을 말하며, 노래의 기본 리듬꼴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말붙임새 활동은 3~4학년은 1~3개의 제재곡, 5~6학년은 2~4개의 제재곡에서 말붙임새 바꾸기 활동이 있다. 3~4학년은 자진모리장단·세마치장단, 5~6학년은 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의 제재곡을 활용하고, 대체로 말붙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다.

말붙임새 바꾸기 활동은 삼소박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다. 먼저 노랫말을 시처럼 읽어본 후에 노래를 부르고, 가락을 넣지 않은 상태로 말붙임새를 읽고 활동 준비를 한다. 교사는 노래에 따른 말붙임새를 아래 [Figure 5]와 같이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어본 후에 일부분의 말붙임새를 바꾸어 가며 말붙임새의 원리를 확인한다. 한꺼번에 말붙임새 카드를 모두 바꾸는 방법 보다, 말붙임새가 달라진 카드 한 장씩 바꾸어 가며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예시로 바꾼 말붙임새를 가지고 노래로 불러보며 말붙임새와 장단의 원리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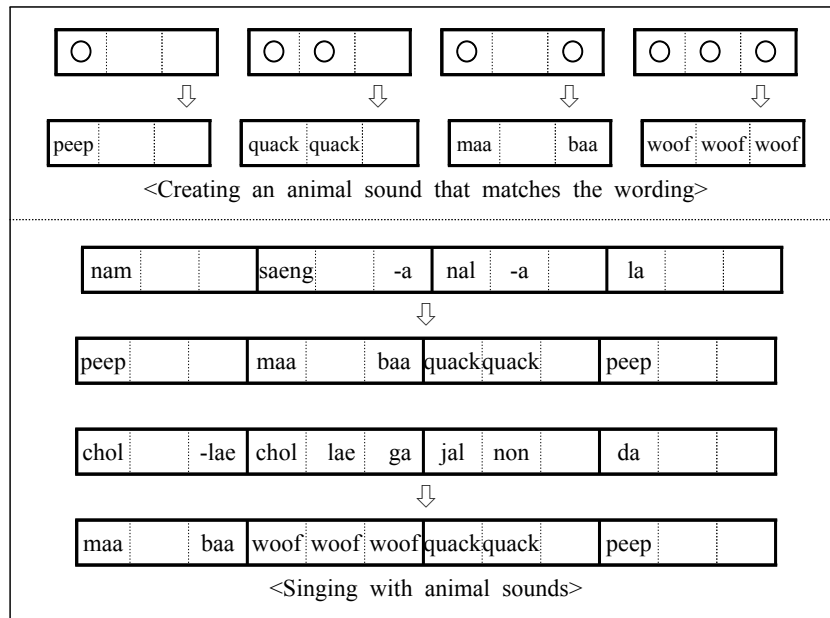
[Figure 5] Examples of the activity to change the utilization of lyrics

학생들은 아래 [Figure 6]과 같이 노랫말이 적혀 있지 않은 빈 삼소박 카드에 보드마카를 사용하여 말붙임새를 바꾸고, 스스로 불러보며 확인하며 수정하거나, 짝과 함께 상대방 말붙임새를 확인해 주고 평가해 주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바꾼 말붙임새 카드는 칠판에 붙이고, 친구들이 만든 말붙임새를 순서대로 읽어보며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 나눈다. 학생들이 바꾼 말붙임새로 노래를 부를 때는 교사가 장단을 쳐주어 장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6] The activity to change the utilization of lyrics

그밖에 삼소박 카드를 사용한 말붙임새 창작활동으로는 말붙임새에 어울리는 동물 소리를 넣어 만들어 부르거나, 노래에 사용된 말붙임새에 동물소리를 넣어부르는 방법이 있다. 말붙임새에 어울리는 동물소리 만들기는 삼소박 카드 첫 번째 소박에 한 글자를 넣거나 첫째 둘째 소박, 첫째 셋째 소박, 삼소박에 맞추어 동물소리를 표현하는데, ‘짹’, ‘삐악’, ‘야-웅’, ‘멍멍멍’으로 만들 수 있다. 말붙임새에 동물소리 넣어 부르는 음악시간에 배웠던 ‘남생아 놀아라’와 같은 전래동요를 활용하여 부를 수 있으며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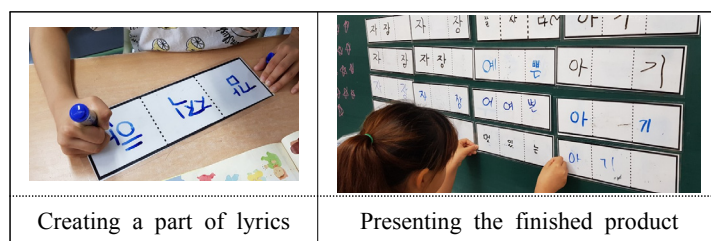
[Figure 7] Exemplary activity for the utilization of lyrics

[Figure 7]의 말붙임에 어울리는 동물소리 넣어 부르는 인천 양지초등학교 1~2학년 각 3개 학급, 서울 삼양초등학교 3학년 5개 이상 학급에 적용해 보았던 활동으로, 다른 제재곡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말붙임새에 맞게 넣어 부르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구를 사용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기초적인 말붙임새 수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랫말 창작활동은 노랫말의 특정 부분에 말붙임새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모두 바꾸는 활동으로 가능하다. 특정 단어를 바꿀 때는 삼소박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든다.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꿀 때는 세 개 또

는 네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모두 바꾸기를 할 때는 한 모듬마다 정해진 소절을 만들고 철판에 연결해서 모두 함께 한 곡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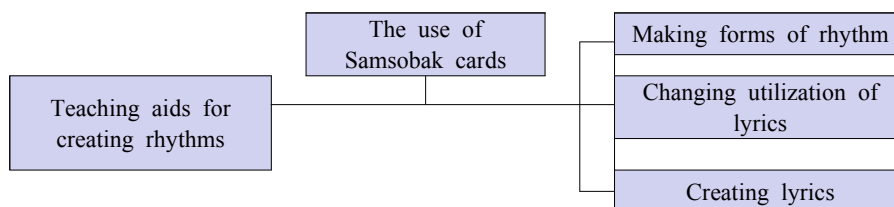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일부 노랫말을 바꾸는 예로, 〈자장가〉에서 ‘우리 아기’ 부분에 ‘우리’ 대신 넣을 수 있는 노랫말을 만든다. 저학년의 경우 카드 한 장을 나누어 주고 노랫말 중 일부분인 단어 바꾸기에 사용하기에 가능하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3학년 5개 학급 학생들에게 적용 해 보았는데, ‘어여쁜, 깜찍한, 튼튼한, 건강한, 똑똑한’ 등으로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 카드를 철판에 제시하고 모두 함께 불러보았다. 학생들의 노랫말 만들기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Figure 8] Appearances of creating lyrics

노랫말 말붙임새 카드는 모듬활동의 활용이 가능하다. 모듬별로 3장 또는 4장의 삼소박 카드를 가지고 개인별 활동지를 사용한 후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을 선정하여 삼소박 카드에 옮겨 적거나, 모듬 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카드에 표기하며 만든다. 모듬별로 완성된 말붙임새·노랫말을 철판에 붙이고, 모두 함께 불러보며 장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붙임새나, 주제에 잘 맞게 만들어진 노랫말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가 활동이 된다. 삼소박 카드는 장단꼴과 말붙임새 바꾸기, 노랫말 창작이 모두 가능하며 노랫말에 어울리게 장단꼴을 바꾸어 완성하는 활동으로 소박과 장단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리듬짓기를 위한 교구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9] Structure chart of rhythmic creativ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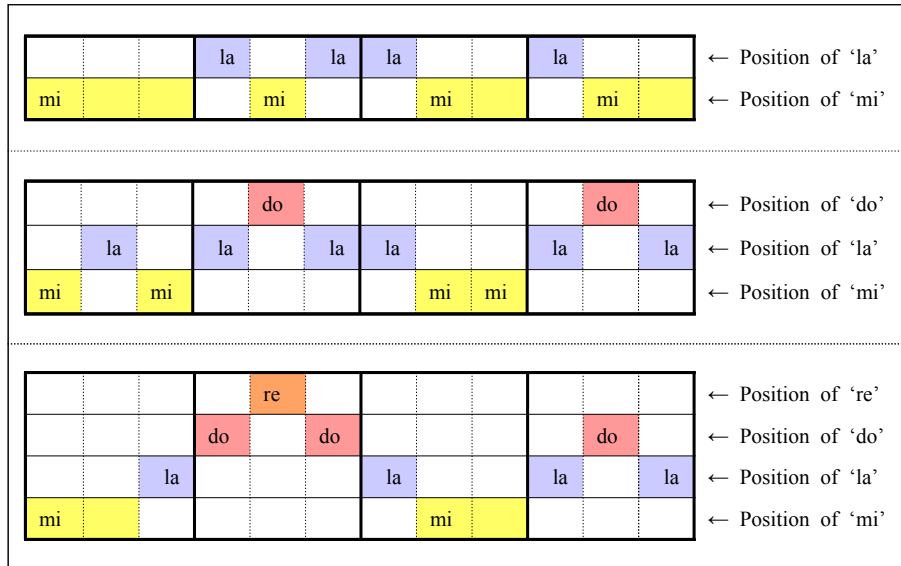
리듬창작을 위한 교구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는 원리로 만든 삼소박 카드 활용을 제안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교사가 현장에서 만들기 용이하고, 학생들에게는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듬·발표 활동을 할 때 활용되도록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였으며 장단꼴 만들기·말붙임새 바꾸기·노랫말 만들기에 사용하였다. 장단꼴 창작은 장단 부호카드를 분리하고 재조합하거나 장단부호를 적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든다. 말붙임새와 노랫말 창작은 삼소박 카드에 직접 적어 넣어 만드는데 특정 부분에 말붙임새 카드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한 장단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모두 바꾸는 활동으로 가능하다. 창작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소박과 장단, 말붙임새와 가락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Ⅲ.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 활용방안

가락짓기는 교과서 제재곡의 주요 구성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도록 가락을 만드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선율의 높낮이나 구성음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체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간보의 원리와 계이름 카드를 이용하여 교구를 만들었으며, 교구를 사용한 가락짓기 창작활동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 제안

가락짓기 교구는 전래동요나 지역적 특징을 지닌 악곡의 구성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2음·3음·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에 사용되도록 고안하였다. 2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가로 2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이 첫 번째 줄은 '미', 다음 윗 줄은 '라'를 나타낸다. 4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2음 가락짓기 교구판을 붙여서 '미'·'라'·'도'·'레'를 나타내며,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3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첫 번째 줄이 '미', 다음 윗 줄은 '라', 맨 위의 줄이 '도' 자리를 나타낸다. 3음 가락짓기 교구판은 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2음·3음·4음 가락짓기 교구판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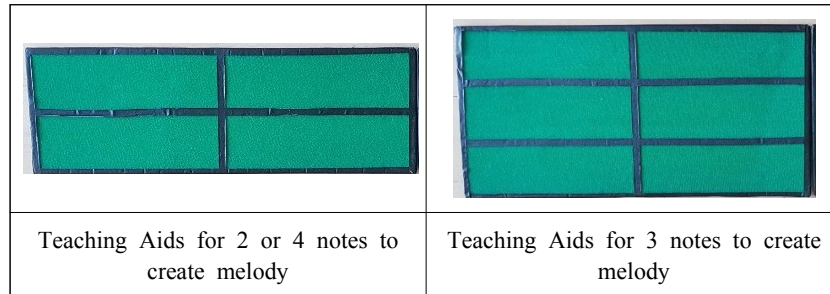


[Figure 10] Principles of creating melodies using 2 notes, 3 notes & 4 notes

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락짓기 교구를 만들었다. 가락짓기 교구는 높이를 나타내는 '교구판'과, 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음카드·음색깔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음 높이 교구판은 가로 두 줄과 세로 네 칸씩 나누어져 있으며, 네 칸은 다시 3개씩으로 나뉜다. 가로줄은 음 높이, 세로 줄은 3소박 4박자 형을 나타낸다. 4음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판은 2음 가락짓기 교구판을 위 아래로 붙여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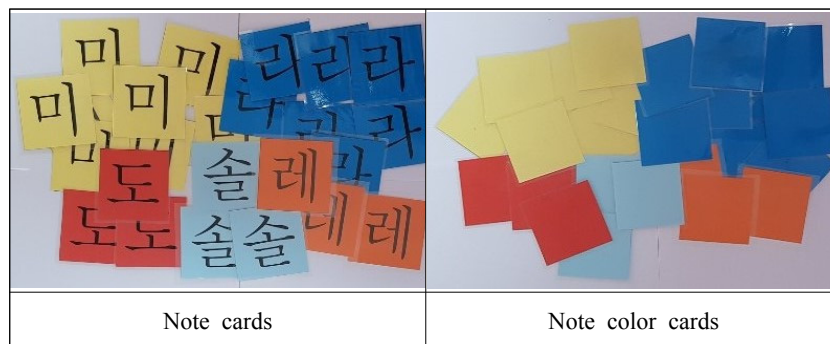
교구판은 아래 [Figure 11]과 같이 벨크로 보드판을 잘라서 만들고, 음카드는 코팅을 하여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교구판위에 음카드를 자유롭게 붙였다 떼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음악 교과서에서 가락짓기 활동은 3소박 4박자 장단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구판은 3소박 4박 한 장단의 형식이 되도록 검정색 마킹테이프를 붙여 1박 마다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교구판은 교사가 제시용으로 칠판에 붙여 사용하거나, 만든 결과물을 발표할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석을 사용하여 칠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교구판은 두 개를 이어 붙이면 4개의 칸이 만들어진다. 한 칸은 1박을 나타내며 한 칸에 3개의 음 카드를 붙일 수 있으며, 후대가 간편하도록 삼소박 2박이 기본 교구 틀이 되도록 만들었다.



[Figure 11] Teaching aids to create melody

음을 나타내는 카드는 ‘음카드’와 ‘음색깔 카드’가 있다. 음카드는 ‘미’·‘라’·‘도’·‘도시’·‘솔’이 적힌 색깔 카드이고, 음색깔 카드는 색으로만 계이름을 나타낸다. 음색깔 카드의 노란색은 ‘미’, 파란색은 ‘라’, 빨간색은 ‘도’, 하늘색은 ‘솔’, ‘도시’ 카드는 도는 꺾는소리 시김새를 나타내기 위해 빨간색 글씨를 사용하였다. 음카드에 특정 색을 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사용하는 율 타악기들과 음 색깔과 같게 하여, 학생들이 교구판을 사용하여 만든 가락을 실로폰이나 핸드벨로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ure 12] Note cards and note color cards

계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음색깔 카드는 보드펜을 사용하여 노랫말을 표기할 수 있다. 음색깔 카드를 교구판에 붙여서 가락을 만들고 음색깔 카드에 노랫말을 써 넣고, 교구판을 칠판에 붙인 후에 모두 함께 불러보는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락짓기 교구판을 가지고 모듬 활동을 할 때 음카드나 음색깔 카드를 모듬별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붙였다 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2. 가락짓기 교구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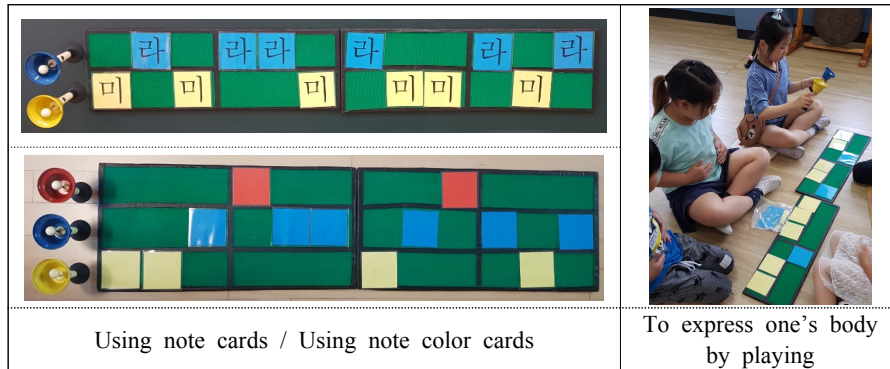
1) 2음 · 3음 가락짓기

2음 가락짓기는 ‘미’·‘라’, 3음 가락짓기는 ‘미’·‘라’·‘도’를 사용하여 가락을 만든다. 초등학교 전래동요는 2~3음으로 구성된 제재곡들이 대체로 많다. 2개의 음으로 곡을 만드는 경우는 아이들의 노래나 놀이와 관련된 유희요에 많이 사용되는데 전국적으로 나타난다(Kim, 2013, p.37). 이처럼 2음 가락짓기는 특정 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창 활동을 통해 익힌 2음으로 가락짓기 창작활동으로 가락을 만들어보는 기초적인 활동, 3음 가락짓기의 전 단계 연습 및 준비 단계의 활동이 된다.

가락짓기를 하려면 먼저 특정 음에 대한 시창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신체표현을 하며 음정 관계를 확인한다.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를 양 손으로 짚으며 표현한다. ‘도시’는 손가락을 머리위에서 폼다가 접으면서 표현하고 ‘솔’은 배를 짚는다(Lee, 2019, p.238). 손으로 음정이 나타내는 곳을 짚으며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을 연결하여 부르고, 빠르기를 다르게 하며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기본 가락을 익히도록 한다.

3음 가락짓기를 위한 구성음 시창은 상행선율에서 ‘미-라-도’와 하행선율 ‘도-라-미’를 신체표현하며 부른다. 교사를 따라 천천히 ‘미-라-도’, ‘도-라-미’를 표현하다가 점점 빠르게 상행과 하행선율로 신체표현한다. 빠르기의 단계는 3단계 정도를 사용하여 ‘느리게-보통-매우빠르기’의 1단계~3단계를 사용하거나 저학년의 경우 ‘거북이-강아지-치타’의 상징적인 단계로 제시하면 즐거운 음악놀이 활동이 되며 신체표현하면서 구성음을 반복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3음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교구를 사용한 2음과 3음 가락짓기 방법은 가로선이 두 줄로 된 2음 교구판과 세 줄로 된 교구판에 게이름이 써 있는 음카드를 붙여 가락을 만든다. 2음 가락짓기는 두 줄짜리 교구판을 사용하고 3음 가락짓기는 세 줄짜리 교구판을 사용한다. 가장 아래는 ‘미’ 카드를 붙일 수 있는 자리이고 다음 위는 ‘라’를 붙일 수 있는 자리, 다음 칸은 ‘도’ 카드를 붙인다. 2음은 ‘미’·‘라’ 카드를 사용하여 가락을 만들고 3음은 ‘미’·‘라’·‘도’ 카드를 사용한다. 만들어진 가락은 신체악기와 핸드벨을 사용해서 가락을 확인한다.



[Figure 13] Example of using a melody making tool

가락이 익숙해지면 음카드를 게이름이 없는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붙이고 음색깔 카드 위에 보드펜으로 노랫말을 써서 완성한다. 처음에는 음카드로 만든 후에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가락을 만들지만, 활동하면서 음이름과 음색깔을 연관시킬 수 있게 되어 음색깔 카드만으로도 가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구를 사용한 가락짓기는 개인활동이나 모둠활동으로 가능하며,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모둠원 들이 핸드벨로 연주하거나 신체표현하는 발표수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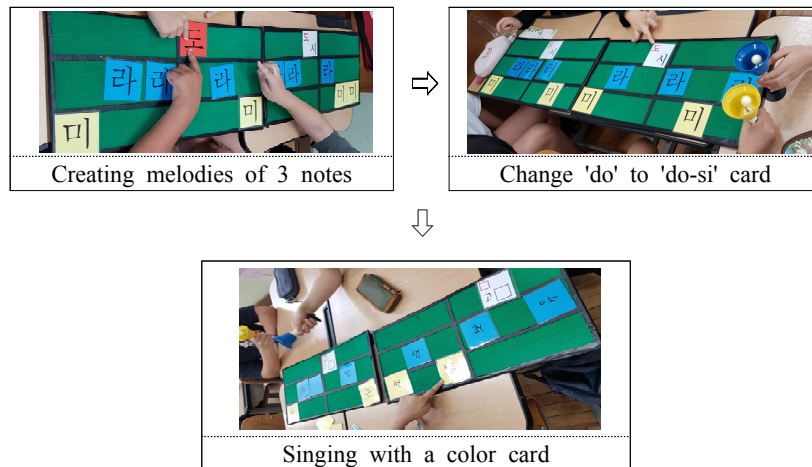
2)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를 ‘남도민요’라 하고 그 음악적 특징을 ‘육자배기토리’라고 한다. 주요 구성음은 ‘미·라·도’이며 ‘미’의 떠는소리와 ‘도’에서 ‘시’로 꺾는 소리의 시김새가 특징이다. 기본음을 시창하기 위하여 신체표현을 하며 구성음 가락을 부르는데,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 ‘도시’는 손가락을 머리위에서 폼다가 접으면서 표현하고 신체표현을 하며 상행 선율과 하행 선율을 연결해서 부르며 가락짓기를 준비한다.

교구를 사용한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는 ‘미’, ‘라’, ‘도’, ‘도시’ 카드를 사용하여 만든다. 먼저 [Figure 14]와 같이 ‘미’, ‘라’, ‘도’ 카드로 3음 가락짓기를 만들고 핸드벨과 신체표현을 하며 가락을 확인한다. 그 다음 ‘도’ 카드 자리에 ‘도시’ 카드로 바꾸어 붙여서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가락을 만든다. 육자배기토리는 하행선율에서 ‘도시’의 꺾는 시김새가 특징이므로 ‘도시’ 부분에서는 손가락을 머리 위에서 꺾어 내는 신체표현을 하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육자배기토리 가락이 익숙해지면 다음 활동으로 노랫말을 넣어 부를 수 있다. 교구

판에 음카드를 음색갈 카드로 바꾸어 붙여서 육자배기토리 가락을 만들고 카드 위에 보드펜으로 자신이 만든 노랫말을 적어 넣고 완성한다. 교구를 사용해 만든 가락을 악기와 신체표현을 하며 부른다.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Figure 14] Creating melodies of Yukjabaegitori

육자배기토리 가락짓기를 모둠활동으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카드 선택의 순서를 정하거나 가위·바위·보, 또는 눈을 가리고 카드를 뽑으면서 활동하였으며, 만들어진 가락을 발표할 때는 연주·노래·신체표현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악기 연주 역할은 '도시'의 꺾는 시김새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재미있는 규칙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육자배기토리 가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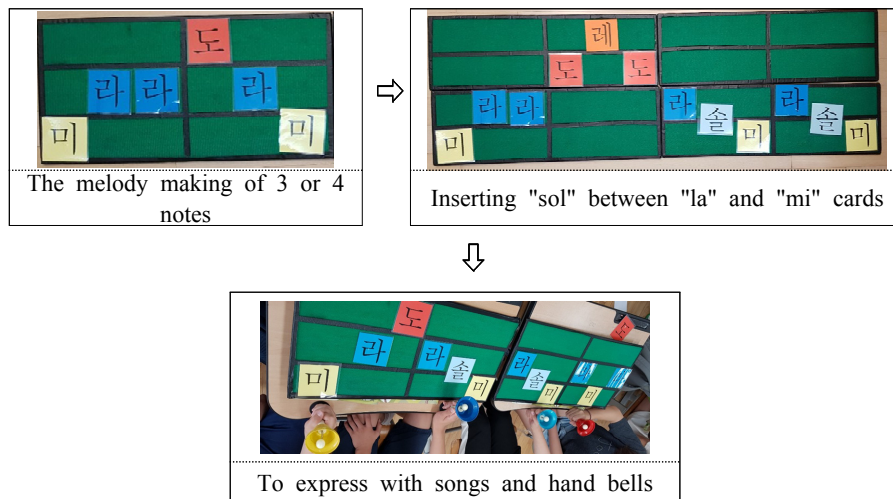
3)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메나리토리는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다. 주요 구성음은 '미·(솔)·라·도'·레'이며 상행할 때 '솔'을 사용하지 않고, 하행할 때 '라'·'미'의 경과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지역적인 특징은 하행선율에서 강하게 드러난다(Kim, 2015, p.46). 이처럼 메나리토리의 선율의 특징은 하행선율에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 가락을 만든 후에 하행선율에 '솔'을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을 자연스럽게 시

창할 수 있도록 상행선율과 하행선율 신체표현을 한다. 상행선율 신체표현은 ‘미’는 배, ‘라’는 어깨, ‘도’는 머리, ‘레’는 양손을 세워서 머리 위의 산 모양을 만들고, 하행선율에서는 ‘솔’은 겨드랑이를 깊으며 배를 표현하는 ‘미’까지 내려온다. ‘라-솔-미’에서 ‘솔’은 대체로 노랫말을 표현하지 않는 시김새 이므로 ‘라-솔-미’ 부분은 연결되도록 표현 하는 것이 메나리토리의 선율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구를 사용하여 메나리토리 가락짓기하는 방법은 아래 [Figure 15]과 같이 3음으로 가락을 만들거나, 2음 가락짓기 교구판 두 개를 붙여서 4음 가락을 만든다. ‘미-라-도’ 또는 ‘미-라-도-레’의 가락에서 하행선율인 ‘라’와 ‘미’ 사이에 ‘솔’ 카드를 첨가하여 메나리토리가락을 만든다. 가락을 게이름으로 불러보고 음색깔 카드로 바꾸어 붙인 후에 보드펜으로 노랫말을 적어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솔’에는 노랫말을 넣지 않도록하여 메나리토리의 시김새 선율이 드러나도록 한다. 완성된 메나리토리 가락은 핸드벨이나 실로폰 연주에 맞춰 신체표현하며 노래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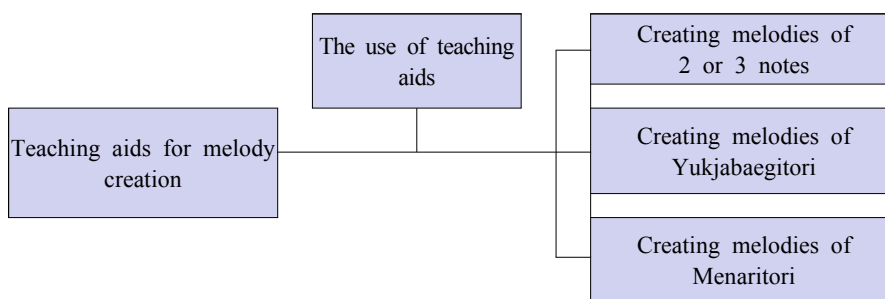


[Figure 15] Creating melodies of Menaritori

그밖에 제재곡에서 배운 노래의 일부 가락을 바꾸는 활동으로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참새노래>의 하행선율이 메나리토리와 동일한 구조인 것을 활용하여 ‘너 어디 가니’의 ‘라-도-도-라-솔-미’ 부분을 3음 가락짓기 교구로 만들고, 다음 가락을 모두 별로 바꾸어 보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모두 함께 ‘너 어디 가니’ 부분을 표현한 후에 만들어진 다음 가락을 모두 순서대로 연결해서 발표하면 <우리반 참새노래>로 만들 수 있다.

가락짓기는 대체로 주제별로 1~2차시로 진행되지만 1차시에 원하는 가락을 모듈별로 만들기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사는 3음 가락짓기, 육자배기 가락짓기, 메나리토리 가락짓기 교구판과 해당 카드를 미리 정리해 두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실제로 인천 초은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활동하면서 “육자배기토리를 만들 건데 ‘도시’ 카드 한 개만 더 주세요.”, “메나리토리를 만들 건데 봉투에 ‘솔’ 카드 대신 ‘도시’ 카드가 잘못 들어 있어요.” 라는 등, 선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구조도와 같다.



[Figure 16] Structure chart of creating melodies

가락짓기를 위한 교구는 정간보의 원리를 사용한 가락짓기 교구판과 음카드, 노랫말을 적을 수 있는 음색깔 카드 활용을 제안하였다. 가락짓기 교구는 2음·3음·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에 사용하였으며 전래동요나 지역적 특징을 지닌 악곡의 구성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음 가락짓기는 ‘미’·‘라’, 3음 가락짓기는 ‘미’·‘라’·‘도’ 카드를 사용하고, 육자배기토리는 3음 가락에 ‘도’ 카드를 ‘도’시’ 카드로 바꾸어 만들며 메나리토리는 3음·4음 가락의 하행선율에 ‘솔’ 카드를 첨가하여 만든다. 교구를 사용한 가락짓기는 개인활동이나 모듈활동으로 가능하며,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모듈원들이 핸드벨로 연주하거나 신체표현하는 발표수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국악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구를 사용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창작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교구는 정간보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국악 창작활동은 장단꼴·말붙임새·가락짓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꼴과 말붙임새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삼소박 카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삼소박 카드는 소박이 모여서 박을 이루는 원리로 만든 교구로 장단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 활동에서 사용하였다. 교구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재조합하여 만든 장단꼴과 말붙임새, 노랫말 창작물은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만든 장단꼴과 노랫말은 악기 연주와 노래로 발표하는 활동과 모듬 활동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통음악의 선율 창작과 악곡이 가진 지역적 특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락짓기 교구를 제시하였다. 가락짓기 교구는 정간보의 원리로 만든 교구로 음높이를 나타내는 교구판과 음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음·3음·육자배기토리·메나리토리 가락짓기 창작이 가능하다. 2음·3음 가락짓기는 ‘미·라’, ‘미·라·도’ 음카드를 사용하고, 메나리토리는 하행선율에서 ‘라와 미’ 사이에 ‘솔’을 첨가하여 만들고, 육자배기토리는 ‘도’ 카드를 ‘도시’로 바꾸어 만든다. 음색깔 카드로 만든 가락은 자신이 만든 노랫말을 적어 넣고 악기나 노래로 표현하여 자신이 만든 가락에 노랫말 만들어 표현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글은 국악 수업에서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창작의 즐거움과 장단과 말붙임새의 생성원리를 익히고, 악곡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년별 5개 학급 이상에 적용하고 쓴 글이다. 그러나 교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의 효과를 수치로 검증하고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락짓기는 3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부터 제시되었는데 현행 교육과정은 5~6학년에서 소개되고 있고, 단계별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가락짓기 창작에 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yun, M. H. (2011). A study on Mal-butchimsae for the approaches to Korean music.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5(1), 101-125.
- Kim, H. H. (2010). *The teaching strategic for rhythm creation using the Malbutchimsae of Jungjungmori and Gutgeori Jangdan*.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H. J. (2013). *Theory and practice for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Seoul: Minsokwon.
- _____ (2013). The types of word Buchimsae for Jangdan of Folksongs and the measures for education. *The Korean Folk song*, 37, 39-67.
- _____ (2015). *Orient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educational use of folk songs*. Seoul: Minsokwon.
- Kim, Y. H. (2001). Group improvisation strategies to develop student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1-24.
- Kim, Y. W. (2015).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Paju: Eumaksekye.
- Kwon, D. W. (2017). A study on the models of instruction for creating Korean music in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4, 7-28.
- Kwon, D. W., Whang, B. H., Song, J. H., & Park, J. M. (2017).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Lee, J. M. (2019). The current education situation of Jeongsun Arirang and educational measures for different areas. *The Korean Folk song*, 57, 223-250.
- Ministry of Education (2007). *Music curriculum*. No. 2007-79.
- _____ (2009). *Music curriculum*. No. 2011-361.
- _____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 Park, H. W. (2009). The studying method for greating rhythm of Jajinmory using the Mal-butchimsae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 *The Korean Folk song*, 25, 115-152.
- Park, C. H. (2015). Analysis of Mal-butchimsae creative activ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Received: 28 February 2020, Reviewed (Revised): 26 March (31 March) 2020

Accepted: 14 April 2020, Published: 31 May 2020

Jeong-Min Lee, E-mail: kitty1236@hanmail.net

Lecturer,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46-37, Hwarang-ro 32-gil, Seongbuk-gu, Seoul,
Korea